

본 논문은 기원전 458년에서 430년까지의 유대 역사를 에스라-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본 것이다. 중요한 거점 연대 - 에스라의 귀환연대(458년)와 느헤미야의 파견임무가 종료(430년) -를 살펴본 후, 연대추정과 관련된 학계의 논의를 다루고, 그 결론을 토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연대와 느헤미야의 제2차 예루살렘 귀환연대 등을 고찰한다.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역사 재구성: 기원전 458년에서 430년까지 에스라-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민 경진 | 부산장신대

1. 이끄는 말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는 통상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기원전 539년부터 그리스에 의해 멸망 당한 기원전 332년까지 약 200여년의 기간을 가리킨다.¹⁾ 본 글의 목적은 이 기간 중 458년부터 430년경까지의 유대 역사를 에스라-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이다. 상술(詳述)하겠지만 458년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파견된 해이며, 430년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느헤미야의 2차 사역이 마무리 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이다. 이러한 재구성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사료로서의 신뢰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이다.²⁾ 하지만 우리가 관심하는 시기에 대해 에스라-느헤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R-2005-003-A00053)

1) 이하의 연대는 모두 기원전이다.

2) 우리가 주로 활용하게 될 자료는 에스라자료와 느헤미야 회고록이다. 이 중 에스라자료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E. Meyer, *Die Entstehung des Judenthums*, (Halle: Max

미야서보다 더 상세히 보도해 주는 사료가 없는 상황을 전제할 때 사료의 신뢰성을 따지는 것보다, 에스라-느헤미야서를 토대로 역사를 일단 재구성해 보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³⁾

에스라-느헤미야서를 일차자료로 우리가 관심하는 시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가령 위에서 에스라의 귀환연대를 458년으로 전제했지만, 아직 논란 중에 있다. 에스라의 활동기간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다. 일년으로 보기도 하고, 십수 년으로 보기도 한다. 느헤미야의 1차 귀환연대는 445년으로 의견의 일치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만 느헤미야가 파견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다. 또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귀환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급파된 이유와 관련해서도 아직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글은 현재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을 살펴 본 후, 이 토대 위에 기원전 458년부터 430년까지의 유대 역사를 에스라-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에스라의 귀환연대와 느헤미야의 2차 사역이 마감되는 해를 각각 458년과 430년으로 설정한 이유를 먼저 약속한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실제 행적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시도해 보려 한다.

2. 재구성 연대의 처음과 끝 - 458년과 430년

1) 458년 *terminus a quo*

Niemeyer, 1896)이며, 신뢰성을 의심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H. Donner, "Das persische Zeitalter," ders,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이다. 느헤미야회고록에 대해서는 통상 에스라자료보다 더 신뢰할만하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가령, H. G. M. Williamson, "Exile and After: Historical Study," D. W. Baker들(eds.), *The Face of Old Testament Studie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236-65쪽, 역사 재구성에 활용하기는 무리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가령, D. J. A. Clines, "The Perils of Autobiography," ders, *What does Eve do to Help?* (JSOTSup 94), (Sheffield: JSOT Press, 1990), 124-64쪽.

3)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역사 자체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빈약했지만, 상대적으로 당시의 유대사회와 행정체제, 및 유대인들의 아웨신앙에 대한 연구는 여럿 있었다. 가령, 김 지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 시리아-팔레스틴의 행정체제," 「구약논단」 6집 (1999), 145-71쪽; "페르시아 시대 이스라엘의 사회-종교변화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3집 (2002), 57-72쪽; 김 영진,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유대 백성의 아웨신앙," 「구약논단」 10집 (2001), 103-21쪽;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신학사상," 「구약논단」 21집 (2006), 33-50쪽.

에스라의 귀환연대만큼 논란이 많았던 구약학의 주제도 흔치 않다. 현재는 전통적인 견해인 458년 설이나, 대안 가설인 398년 설로 압축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밖에도 여러 대안 가설들이 제기되어 왔다.⁴⁾

에스라의 귀환연대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에스라를 유다로 파견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페르시아에는 역사적으로 세 명의 아닥사스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 명의 아닥사스다 중 359-338년까지 왕으로 있었던 아닥사스다 3세(Artaxerxes III Ochus)를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는 거의 없다. 한편 전통적인 견해는 에스라를 파견한 왕을 아닥사스다 1세(Artaxerxes I Longimanus 465-425)로 보아 그의 귀환연대를 458년으로 보지만, 대안 가설은 405-359년까지 재위했던 아닥사스다 2세(Artaxerxes II Memnon)로 보며 에스라의 귀환연대가 398년이라고 주장한다. 느헤미야의 귀환연대는 통상 445년으로 추정되므로 에스라의 398년 귀환가설을 따르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약 50년 후에 귀환한 셈이 된다. 이럴 경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인으로 보기 어렵게 되어 이 둘을 동시대인으로 보도하고 있는 성경의 언급(느 8: 9; 12: 26, 36 참조)과 상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지만 이런 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에스라의 귀환연대를 398년으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먼저 귀환했다고 보아야 온전히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에스라가 느헤미야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아십(느 3: 1)의 아들 여호하난과 동시대인이었다(스 10: 6)는 점은 느헤미야의 선(先) 귀환설을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것이다.⁵⁾ 에스라의 이 “398년 귀환가설”은 “428년 귀환가설”을 주장했던 이들과는 달리 성경본문을 수정하지 않고 에스라와 관계하는 아닥

4) 에스라의 귀환과 관련된 포괄적인 논의를 보려면 J. Bright, “The Date of Ezra’s Mission to Jerusalem,” ders, *A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391-402쪽과 H. G. M. Williamson, *Ezra and Nehemiah*, (Sheffield: JSOT Press, 1987), 55-76쪽을 보라. 브라이트는 이곳에서 에스라의 428년 귀환가설을 지지한다. 반면 윌리엄슨은 에스라의 귀환을 458년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를 지지한다.

5) 이 밖에도 예루살렘에서 ‘울’(wall 성벽) 주심을 감사했던 에스라의 기도(스 9: 9)는 느헤미야의 성벽재건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의 많은 인구(스 10: 1)도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킨 느헤미야의 사민정책의 결과(느 7: 4-5; 11: 1-2)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또한 느헤미야는 2차 예루살렘 방문 때 한 위원회를 신설하는데(느 13: 13)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위원회는 이미 존재해 왔던 것처럼 보인다(스 8:33). 참조 R. W. Klein, “Books of Ezra-Nehemiah,” *ABD* Vol 2, 731-42쪽; Williamson, *Ezra and Nehemiah*, 55-64쪽.

사스다를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다 '1세'가 아닌 '2세'로 간주할 뿐이라는 점에서 널리 수용되어 왔다.⁶⁾

하지만 398년 가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⁷⁾ 이 가설의 가장 매력 있는 근거로 인용되어 왔던 에스라와 여호하난의 동시대성 문제 역시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느헤미야 당시의 엘리아십(느 3: 1)과 에스라 10장 6절에 언급된 엘리아십이 동일인물이라는 전제하에서 유효하지만 이 둘은 동일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느헤미야의 엘리아십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에스라의 엘리아십은 단순히 '제사장'이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엘리아십을 굳이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으로 명명한 것은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엘리아십이 대제사장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⁸⁾ 대제사장이 '골방' 책임자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⁹⁾

에스라의 398년 귀환가설의 기반은 이처럼 약화된 반면, 최근의 추가적인 논의는 에스라가 458년에 귀환했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가령 윌리엄슨(Williamson)은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사역을 전제하지만 그 역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여 파견한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반면,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사역을 완수하려고 그 후에 파견되었다면 에스라는 최소한 느헤미야의 직책 이상의 신분으로 왔어야 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¹⁰⁾

6) 참조 Williamson, *Ezra and Nehemiah*, 55-64쪽.

7) 가령, 에스라의 기도 중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울을 주셨다"에서 "울"을 느헤미야가 건축한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표현할 때는 이곳에 쓰인 גִּדְּרֵי(가데르)가 아니라 חֹמֹת(호마)가 통상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왕하 3: 27; 느 1: 3 등). 또한 에스라 10장 1절을 근거로 에스라 시대의 예루살렘 인구가 많아진 것에 근거한 논의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그 구절에서 언급된 인구가 반드시 예루살렘 거주민만을 의미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느헤미야 귀환 직전에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있었으므로(스 4: 23; 느 1: 3 참조) 에스라 시대에 많았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느헤미야 시대에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가 신설한 위원회와 관련된 논의 역시 398년 가설을 옹호한다고 보기 어렵다. 에스라가 관계한 위원회와 느헤미야가 신설한 위원회가 동일 위원회라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두 위원회는 구성원도 달랐고, 역할도 달랐다. 참조 Williamson, *Ezra and Nehemiah*, 55-69쪽.

8) 참조 "...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스 10: 6).

9) 윌리엄슨은 당시에 파포노미(papponomy) 관습이 유행했음을 들어 에스라 10장 6절의 엘리아십이 느헤미야 13장 4절의 엘리아십의 할아버지였다고 본다. Williamson, *Ezra and Nehemiah*, 63-64쪽.

하지만 에스라의 458년 귀환가설을 옹호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느헤미야 1장 1절에 있다. 398년 가설은 에스라의 아닥사스다와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다를 다른 인물로 보지만, 이 구절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관계하는 아닥사스다가 동일 인물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개역성경은 느헤미야 활동의 시대적 배경을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은 없고 단순히 “제이십년”(שנת עשרים) 슈나트 에스림이라고만 되어 있다. 루돌프(Rudolph)는 이 본문은 본래 아닥사스다 왕이 적혀 있었다고 보지만,¹¹⁾ 이 견해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 여구가 전승과정에서 탈락되었다는 최소한의 사본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무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¹²⁾ 또한 에스겔 1장 1절에서 “삼십년”이라는 말이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킨다는 일반적 해석에 비추어 느헤미야의 나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십 세’에 대 페르시아 제국의 술말은 관원과 유대총독 직책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반면에 2장 1절을 미루어 볼 때 1장 1절에 암시된 왕은 “아닥사스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방식은 뭔가 이상하다. 느헤미야의 연대적 배경의 핵심이 되는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독자가 2장에 가면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밝히기를 유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외의 서술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암시되어 있는 왕은 이미 앞에서 계속 언급되어 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느헤미야서는 본래 에스라와 이어져 있는 책(곧 ‘에스라-느헤미야서’)이므로¹³⁾ 느헤미야 1장 1절에 암시된 왕은 에스라 7장 이하에 언급된 아닥사스다이어야만 하며, 이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관계된 아닥사스다가 동일인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에스라의 귀환연대에 대해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398년 가설은 한 동안 많은 이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지만 458년 가설이

10) Williamson, *Ezra and Nehemiah*, 64-68쪽.

11) W. Rudolph, *Ezra und Nehemia*(HAT 20), (Tübingen: Mohr, 1949), 102쪽.

12) 참조 H. G. M. Williamson, *Ezra, Nehemiah*(WBC 16), (Waco, Texas: Word Books, 1985), 166쪽.

13) 참조 민 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선구자들의 하나님」(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5), 212-30쪽.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옹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느헤미야 1장 1절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아닥사스다에 의해 파견되었음을 강력히 증거 한다. 이에 우리는 에스라의 귀환을 아닥사스다 1세 7년째인 458년에 파견되었다는 견해에 동의하며 이 연대는 우리가 재구성하려는 연대의 시작이다.

2) 430년 *terminus ad quem*

(1) 445년 일차귀환가설

느헤미야의 귀환연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곧 느헤미야를 파견한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 1세이며 이로 인해 느헤미야의 1차 귀환은 445년이고, 12년간 총독으로 재임 후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곧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므로 2차 귀환은 432년 경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추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엘레판틴 문서들 때문이다. 이 문서들 중 407년에 보내진 한 편지는 페르시아 다리오 2세(423-404년)에 의해 유다로 파견된 총독이었던 바고아스(Bagoas)에게 보내졌는데 이 바고아스의 전임자가 느헤미야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편지에는 들라야(Delaiiah)와 셀레먀(Shelemiah)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느헤미야의 대적자였던 산발랏의 두 아들이었다. 더군다나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언급되어 있는 요하난(Johanan)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 의하면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아십의 두 번째 계승자였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느헤미야의 귀환은 다리오 2세의 전임자였던 아닥사스다 1세 시대였고 연대로는 445년 - 아닥사스다 제 20년 - 에 귀환했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⁴⁾

(2) 세일리의 도전

비록 소수지만 이 견해와 다른 이론을 제기한 학자들도 있다. 가령 세일리(Saley)는 느헤미야의 귀환연대를 아닥사스다 '2세' 20년인 384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맥폴(McFall)은 느헤미야의 445년 귀환은 두 번째 귀환이며 그보다 앞선 465년에 1차 귀환이 있었다고 주장

14) 참조 J Bright, *A History of Israel*, 379-85쪽.

했다.¹⁵⁾

세일리는 335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마리아 지역의 한 문서가 1962년 달리에 와디(Wadi Daliyeh)에서 발굴되었는데 여기에 총독 ‘산발랏’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음을 들어 파포노미(Papponomy)관습이 페르시아에서 유행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전제에서 세일리는 느헤미야 12장 22-23절에 기록된 대제사장 계보에 대해 일반적인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한다. 이 계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2절에서는 요하난이 엘리아십의 손자로 되어 있지만(엘리아십 → 요야다 → 요하난), 23절에서는 엘리아십의 아들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통상 요하난을 엘리아십의 <벤>(בן 23절)이라 할 때, ‘벤’을 손자로 해석하여 요하난을 요야다의 아들로 해석해 왔다. 또한 23절의 요하난(יְהוֹנָתָן)을 요나단(יְוֹנָדָן)에 대한 필사자의 실수로 생각하며, 느헤미야 12장의 편집자는 포로기 이후 제사장의 명단을 10-11절(예수아 → 요야김 → 엘리아십 → 요야다 → 요나단 → 앓두아)로 요약해 두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일리는 <벤>을 손자로 해석할 특별한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이 두 곳의 ‘요하난’을 다른 인물로 본다. 또한 당시 파포노미 관습이 유행했음을 들어 포로이후의 제사장 명단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다.

페르시아 왕	대제사장	성경출처
아닥사스다1세(465-424)	엘리아십1세	느 12: 23
아하수에로2세(424-423)		
다리오2세(423-404)	요하난1세	느 12: 22
아닥사스다2세(404-358)	엘리아십2세 요야다	
아닥사스다3세(358-338)	요하난2세	
다리오3세(336-331)	앓두아	

이 연대표를 근거로 세일리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2세 제7년인 398년에 귀환했으며 에스라 10장 6절에 언급된 요하난은 바로 엘리아십 1세의 아들 요하난 1세였다고 본다. 이 요하난 1세가 바로 엘레판틴 문서에 나오는 요하난이라고 본다. 또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세 제20

15) R. J. Saley, "The Date of Nehemiah Reconsidered," A. Gary(ed.), *Tittle, Biblical and Near Eastern Studies*. (Grand Rapids: Eerdmans, 1978), 151-65쪽; L. McFall, "Was Nehemiah contemporary with Ezra in 458 BC?" *WTJ* 53 (1991), 263-93쪽.

년인 384년에 엘리아십 2세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 왔다고 주장한다.

언뜻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 견해는 상당히 자의적인 설정에 근거해 있다. 무엇보다도 파포노미에 의한 대제사장 계보 재구성은 학자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¹⁶⁾ 또한 느헤미야 12장의 대제사장 계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과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견해인지 의심스럽다.

(3) 맥폴의 도전

맥폴의 방법론은 독특하다. 에스라의 귀환연대를 아닥사스다 1세 7년인 458년으로 먼저 확정된 후 느헤미야의 귀환연대를 연구한다. 또한 히브리어 본문에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럴 경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에 귀환했으므로 당연히 445년 귀환가설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맥폴은 다른 이론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에스라의 귀환 후 활동에 관한 기록인 에스라 9 - 10장과 느헤미야 8장의 사건은 에스라가 도착한 해인 458년에 모두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되는데 느헤미야의 연대를 445년으로 보게 되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곳에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느 8: 9)과 상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느헤미야 5장 14절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과거 아닥사스다 이십년부터 삼십 이년까지의 총독으로서 행했던 일들을 회고하는데 이것도 이상하다. 느헤미야 5장 현재 느헤미야 자신은 아닥사스다 20년에 파견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맥폴은 두 연대 계산법인 “왕조계산법”(dynastic reckoning)과 “개인통치계산법”(sole-reign reckoning)이 느헤미야서에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느헤미야 5장 14절에 나오는 연대기(“아닥사스다 제20년부터 32년까지”)는 왕조계산법에 의한 것으로 아닥사스다의 부친인 아하수에로(486-465년)부터 계산한 것으로서 아닥사스다 제20년은 곧 아하수에로 왕조부터 계산된 465년을 칭한다는 것이다. 이렇

16) 가령 크로스는 대제사장 연표를 엘리아십 I → 요하난 I → 엘리아십 II → 요아다 → 요하난 II → 앳두아 II → 요하난 III → 앳두아 III로 구성하면서 아닥사스다 1세 때의 엘리아십을 세일리와는 달리 엘리아십 II로 본다. 참조 F. M. Cross, “A Reconstruction of the Judean Restoration,” *JBL* 94 (1975), 4-18쪽.

경우 느헤미야의 1차 예루살렘 체류 시기는 465년부터 454년까지가 되는 셈이다. 반면 느헤미야 2장 1절에 언급된 “아닥사스다 제20년”은 개인통치계산법에 의한 것으로써 아닥사스다 제20년인 445년을 가리킨다. 느헤미야는 이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 짧은 기간만 머물렀을 것으로 맥폴은 본다.¹⁷⁾ 맥폴의 이러한 견해는 에스라의 귀환연대인 458년을 고려하면 느헤미야의 1차 귀환시기와 맞물리는 시기 - 곧 458년에서 454년 - 가 있어 위에서 제기된 난점인 느헤미야 8장 9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맥폴의 견해는 무엇보다 왕조계산법과 개인통치계산법의 적용의 자의성이 문제된다. 에스라의 연대를 이러한 계산법을 근거로 하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자신의 전제된 결론에 계산방식을 맞춘 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4) 중간요약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445년 귀환가설에 대한 두 학자의 견해를 검토해 보았지만 445년 가설을 대체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론은 아니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엘레판틴 문서에 근거한 느헤미야의 445년 1차 귀환가설이 현재 우리로서 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견해로 생각된다.

느헤미야의 1차 귀환연대를 445년으로 확정할 때 그의 예루살렘 체류는 433년까지 이어졌을 것이다(느 5: 14). 12년간의 총독생활을 마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간다. 하지만 페르시아에 돌아간 지 얼마 후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파견된다(느 13: 6). 급파된 것으로 보아 다급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예루살렘으로 급파된 이후의 행적이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다(13: 7-31). 다시 돌아온 후 느헤미야의 활동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다지 긴 세월은 아니었던 것 같다. 따라서 430년경에는 느헤미야의 활동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공히 아닥사스다 1세 시대 제7년과 제20년에 각기 임무를 띠고 예루살렘에 파견되었으며, 에스라

17) McFall, “Was Nehemiah contemporary with Ezra in 458 BC?” 270-73쪽.

가 파견된 시기는 458년이고 느헤미야의 임무 마지막은 430년경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458년은 우리가 재구성해 보고자 하는 유대 역사의 상한선(*terminus a quo*)이며 430년은 하한선(*terminus ad quem*)이 된다.

3. 에스라의 파견과 행적

1) 성서의 진술

에스라의 행적에 관한 성서의 기록은 에스라 7장 - 10장과 느헤미야 8장에 주로 나와 있다. 에스라 7장 - 10장에는 에스라가 귀환하게 된 배경과 귀환 후의 에스라의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 8장에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수문 앞에서 율법을 읽어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에스라가 귀환하게 된 배경은 에스라 7장 12-26절에 기록된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잘 드러나 있다.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한 주요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한 것”(스 7: 14)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재판 기준이 될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스 7: 25-26). 이 목적을 수행하도록 에스라를 보내면서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선물 및 보조금 수송의 부차적 책임도 맡긴다(스 7: 15이하). 에스라는 이 수송임무를 세심하게 수행한다. 예물을 수송할 사람을 엄선하여 책임을 정해준다(8: 24-30).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제사장에게 건네준 후 혹시 차이가 있을까 재차 확인까지 한다(8: 33-34).

에스라 9장 - 10장은 유대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핀 사역의 한 예로 에스라가 통혼한 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통혼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다. 반대자들도 있었지만 결국 많은 이들이 이방 여인과 절교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치는 임무는 느헤미야 8장에서 수행되고 있다.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은 그 율법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준다. 율법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백성들은 각성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다짐한다.

요컨대 에스라 7장은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8장은 예물수송임무에 대한 보고이며, 9장 - 10장은 예루살렘의 정형을 통혼의 관점에서 살피고 해결한 것에 대한 기록이고, 느헤미야 8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임무에 대한 에스라의 사역을 기록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2) 논점

(1) 문제

위에서 우리는 에스라에 대한 기록을 에스라의 임무와 그가 수행한 업적의 관점에서 살펴봤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우선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의 통혼에 대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는가 하는 것이다. 통혼이 결정적으로 페르시아에 위협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통혼이야말로 속국 백성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는 것과 통혼문제 해결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아닥사스다가 명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유다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서쪽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율법을 읽어준 것은 에스라가 수행해야 할 임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의 에스라에 대한 기록은 에스라에게 부여된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는가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곧 에스라 귀환 후의 행적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¹⁸⁾

이와 더불어 가장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부분은 느헤미야 8장이다. 이곳에는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8장 9절에 의하면 율법이 낭독되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도 함께 있었다. 전술한 대로 느헤미야는 445년에 귀환했으므로, 이 낭독사건은 에스라는 458년에 귀환했으므로 빨라야 13년 후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이 진술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이 명한 임무를 13년 동안이나 지연시킨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통상

18) 에스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조서와 에스라자료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보려면 Williamson, *Ezra and Nehemiah*, 20-26쪽을 보라.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율법낭독사건을 에스라가 귀환한지 2개월 후에 읽어주었다고 보며, 느헤미야 8장 9절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후대에 편 집자에 의해 삽입된 것으로 본다.¹⁹⁾

(2) 예루살렘의 정형 살피기

하나씩 정리해 보자.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를 파견한 것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따라서 에스라가 부여받은 두 임무는 먼저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 첫째 임무인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반복하지만 ‘통혼문제해결’은 페르시아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 사실 에스라 9장 - 10장을 보면 이 통혼문제 처리는 에스라 개인의 신앙의 양심과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곧 페르시아 왕실의 명령 때문에 통혼문제를 해결하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이 첫째 임무에 대해 어떤 일을 했는가? 불행히도 우리가 지닌 에스라 본문에서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능한 설명이 있겠지만 우리는 페르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무수행을 했다고 볼 명확한 자료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 임무와 관련하여 에스라의 행적을 암시하는 본문이 있다. 예루살렘 성읍 건축을 시도했지만 좌절된 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에스라 4장 7-23절이다. 제국의 안정을 중시했던 페르시아로서는 속국들의 반란이 주된 고민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시도에 페르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성읍건축 시도가 누구에 의해 주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유일한 단서는 아닥사스다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유대인들이 주도했음을 보도하는 에스라 4장 12절이다. 그렇다면 누가 아닥사스다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가? 현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에스라 아니면 느헤미야 일 것이다. 느헤미야의 경우 예루살렘 성읍재건을 왕에게서 직접 윤허 받았으므로, 페르시아에 ‘위협’으로 여겨졌던 에스라 4장의 성읍재건은

19) 참조 Williamson, *Ezra, Nehemiah*, 277-79쪽; J. M. Myers, *I & II Esdra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2), 91쪽; Rudolph, *Ezra und Nehemia*, 148쪽.

루돌프도 동의하는 대로 ‘에스라’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²⁰⁾ 에스라는 이 성읍재건 사역을 직접적으로 후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페르시아 정부에 의해 제거 당했을 것이다. 에스라는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 뒤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들 내부의 동태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했을 것이다. 하지만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 임무를 지연시키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간접적으로 후원했을 것이다.

(3)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인가

이제 두 번째 받은 임무를 생각해 보자. 이 임무는 첫 번째 임무와 연결되어 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의 관심사인 반역의 징후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다면 이 두 번째 임무는 이러한 반역을 근본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법’을 가르치게 한 것이다.

전술한 대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요구한 것은 유프라테스 강 서편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는 것이었다(스 7: 25). 하지만 이 명령은 이상하다. 페르시아가 ‘율법’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도 이상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비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통치되어야 하는 것도 이상하다. 여기서 유념할 것이 있다. 에스라 7장의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율법’(12, 14, 21, 25, 26절)으로 번역된 아람어는 ܢܗܗ(다트/법)인데 이 단어는 ܢܗܗ(토라/율법)와 동의어가 아니다.²¹⁾ 즉 이 단어는 이미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듯이(단 2: 15; 6: 16) 주로 왕의 칙령과 관계된 단어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토라의 상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부여한 두 번째 임무는 페르시아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담겨진 바로 이 ‘제국’의 법을 유대를 포함해서 강 서편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²²⁾

20) 참조 Rudolph, *Ezra und Nehemia*, 44-45쪽.

21) R. Rendtorff, “Esra und das Gesetz,” *ZAW* 96 (1984), 65-84쪽. 에스라가 가져 온 율법책의 성격과 관련된 논의를 보려면 Williamson, *Ezra and Nehemiah*, 90-98쪽을 보라.

22) 참조 J. L. Berquist, *Judaism in Persia's Shadow: A Social and Historical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S. E. Balentine, *The Torah's Vision of Worship*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민 경진, “아케메네드 정책과 에스라-느헤미야서”, 『부산장신논총』 6집 (2006), 1-21쪽.

에스라는 자신이 받은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역시 에스라-느헤미야서에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 이 문제는 느헤미야 8장에서 율법낭독 사건과 연결되므로 이어지는 아래 단락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

(4) 느헤미야 8장 9절

느헤미야 8장 9절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느헤미야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한다. 그럴 경우 최소한 13년 동안 에스라는 율법낭독 임무에 태만한 셈이 되기 때문에 본문을 수정하여 율법이 낭독될 때 느헤미야는 본래 그 자리에 없었다는 식으로 설명해 왔다.²³⁾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마소라 본문을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이해를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445년 이후로 보아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에스라가 13년 동안 율법을 읽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겠지만 사실 에스라가 부여받은 임무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는 것이라기보다, 유사와 재판관들 및 백성들에게 (페르시아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의 사건을 반드시 에스라의 귀환 직후에 행했어야만 하는 시역으로 볼 필요가 없다. 율법낭독 사건은 페르시아 왕이 부여한 임무와 무관한 사건이었을지 모른다.

3) 에스라의 행적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에스라의 행적을 정리해 보자. 5세기 중반 무렵, 페르시아는 제국 외부의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페르시아는 제국주변부의 속국들과 확실한 주종관계를 세우는 한편, 반란의 징후가 없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성전을 오래 전에 재건한 유다에서는 '왕'이라는 구심점은 없지만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세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혹시 예루살렘 안에 반(反)페르시아 움직임이 없는지 제사장 내부의 움직임을 보고하라는 임무를 준다. 이 임무와 더불어서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백성들에게는 페르시아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담은

23) 앞의 각주 20을 보라.

제국의 '법'을 가르칠 것을 주문한다.

이 임무를 부여받은 에스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개입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예전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을 귀환시킬 때 페르시아는 자국의 이익의 일환으로 조서를 내렸지만, 유대 백성들은 이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듯이 말이다.²⁴⁾ 에스라는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할 결심을 했을 것이다. 바벨론 한 구석에 처박혀서 율법을 평생 연구했던 에스라는 이제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왕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건된 성전을 지키기 위한 성벽재건 사역을 후원했을 것이다. 에스라 4장 12절의 보고에 의하면 상당한 진척을 본 것으로 보인다. 에스라는 전면에서 이 사역을 인도하는 우(愚)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여 받은 다른 임무—페르시아 법을 가르치는 임무—를 유다 밖에서 열심히 하며 후방에서 여러 지원을 했을 것이다. 당시 영토를 고려해 볼 때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이 법을 가르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외적으로는 충실하게 이 사역을 하면서 또한 내면적으로는 후대에 '제 2의 모세'라는 칭호를 들을 만한 율법 전문가로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십 수 년 후에 느헤미야가 귀국해서 성벽을 완성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동안 준비했던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쳤으며, 그 후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할 때 함께 참여했을 것(느 12: 36)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에스라의 활동연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참조 민 경진, 「선구자들의 하나님」, 36-51쪽.

날 짜	사역 내용	관계 본문	
458년 (아다사스다 제7년)	1월 1일	아하와 강으로 모여 떠날 준비	스 7: 1 - 8: 30
	1월 12일	예루살렘으로 귀환 시작	스 8: 31-36
	5월 1일	예루살렘 도착	스 7: 9
	9월 22일	예루살렘으로 회중 소집하여 개혁촉구	스 9: 1 - 10: 15
	10월 1일	이방 여인 취한 자 명단조사 시작	스 10: 16
457년	1월 1일	명단조사 마침	스 10: 17
457-445년		강 서편 지역에서 '법'을 가르침	
		예루살렘 성읍 재건 간접 지원	스 4: 12
445년 ²⁵⁾	7월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율법낭독	느 8장
445년		성벽봉헌식에 참석	느 12: 27-43

4. 느헤미아의 파견과 행적

1) 성서의 진술

이제 느헤미아의 행적을 연구해 보자. 느헤미아는 두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아는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었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느 1장), 자신이 모시던 페르시아 왕 아다사스다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한다. 허락을 얻어낸 느헤미아는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직접 둘러본다. 비참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느헤미아는 마음을 합해 성벽을 중건하자고 백성들에게 호소한다(2장). 역할과 임무를 배분하여 모든 백성들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3장).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 암문사람 도비야 및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연합하여 방해공작을 벌인다. 특히 심리전을 통해 유대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 한다. 하지만 느헤미아는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성전중건 사역에 박차를 가한다(4장). 백성들의 수고와 느헤미아의 리더십이 결합되어 결국 역사(役事)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다(6장). 재건 후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했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에스라는 힘을 다

25)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의하면 성벽재건을 마친 달은 “엘룰”이다. 엘룰 다음 달이 초막절이 있는 “티쉬리”이다.

해 읽어주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회개기도를 한 후 율법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한다(8 - 10장). 이후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십분의 일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조치를 취해 도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11장). 이제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축제를 연다.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선봉에 서서 중건된 성벽을 감싸는 행진을 벌이며 하나님을 맘껏 찬송한다(12장).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12년간의 총독생활을 한 후 페르시아로 돌아갔다. 하지만 돌아간 직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파견된다(13: 6). 파견된 후 얼마간 체류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다지 오랜 기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느헤미야의 2차 방문 후의 행적은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곳의 기록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성전 뜰에 있는 방을 차지한 도비야를 축출하고 레위인들의 처우개선에 주력한다. 또한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자녀들의 유다방언 교육에 소홀히 한 것에 대해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엘리아십 가문이 산발랏 가문과 사돈관계가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한다.

2) 논점

(1) 문제

느헤미야의 행적은 위에 기술된 바와 같다. 느헤미야서를 토대로 한 평면적 서술로서 큰 틀에서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인다. 즉 12년간의 첫 번째 방문 때는 성벽재건에 주력했고 두 번째 방문 때는 유다사회에 대한 내부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각 행적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가령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훼파된 것을 두고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한다. 이 정도로 슬픈 감정을 야기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자신의 고위관직을 박차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또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재건 요청에 대해 흔쾌히 아닥사스다가 허락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에스라 4장 12절 이하의 기록에 의하면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 성읍 재건시도에 대해 격노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의 첫 체류 기간인 12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느헤미아의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는데, 성벽중건은 52일 만에 끝났으므로²⁶⁾ 나머지 기간동안 체류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 또한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백성들이 세금이 과중해서 살기 어렵다고 느헤미야에게 하소연한다. 이때 느헤미야가 처리한 방식을 보면 철저히 페르시아 정부 입장에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느 5: 6-11 참조). 느헤미아의 2차 방문도 석연치 않다. 페르시아로 돌아간 지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급파되었는데 느헤미아의 행적을 보면 과연 그렇게 급하고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의심스럽다.

(2) 어느 환난?

우선 예루살렘의 재앙 소식을 두고 느헤미야가 보여준 감정적 반응에 대해 생각해 보자. 느헤미야 1장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형편은 587년에 일어났던 성읍 파괴로 인한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학자들은 느헤미야 1장의 연대적 배경이 되는 445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시기에 예루살렘이 당한 재앙을 추적해 왔다. 가령 모르겐스텐(J. Morgenstern)은 이 문제를 가장 전격적으로 연구하였다. 그에 의하면 아하수에로1세가 왕위에 오른 해인 485년에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시리아 등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큰 재앙을 겪었는데, 느헤미야 1장은 이 재앙 후 40년 동안 성벽 없이 폐허가 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⁷⁾ 하지만 이 가설은 수증하기 어렵다. 모압과 에돔은 당시에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지닌 정치적 실체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⁸⁾ 더군다나 느헤미야 1장에 나타난 느헤미아의 감정적 반응

26) 예루살렘 성벽 재건 기간에 대해 요세푸스는 2년 4개월 걸렸을 것으로 추정했고(*Ant.* XI. 5. 8) 일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참조 J. Bright, *A History of Israel*, 381쪽.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 (1)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重修; repair)했지 건축한 것이 아니다; (2) 중건한 지역은 북쪽의 양문에서 남동쪽의 샘문까지였다. 공사하기 어려운 동쪽지역은 보수하지 않았다; (3)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약 2600m로 그다지 큰 것은 아니었다. 참조 K. M. Kenyon, *Digging up Jerusalem*, (London & Tonbridge: Benn, 1974); (4) 에스라 4장 12절은 아닥사스다 시절에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 성읍이 이미 어느 정도 재건되었음을 보여준다. 참조 민 경진, 「선구자들의 하나님」, 131-32쪽.

27) J. Morgenstern, "Jerusalem - 458 B.C.?" *HUCA* 27 (1956), 101-79쪽, *HUCA* 28 (1957), 15-45쪽, *HUCA* 31 (1960), 1-29쪽; *idem*, "The Dates of Ezra and Nehemiah," *JSS* 7 (1962), 1-11쪽.

28) 참조 G. W. Ahlström,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from the Palaeolithic Period to Alexander's Conquest*, (Sheffield: JSOT Press, 1993), 858쪽; H. H. Rowley, "Nehemiah's

을 볼 때 이 사건은 40년이나 떨어진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더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앞에서 재구성된 에스라의 귀환 후의 행적은 우리의 관심을 끈다. 앞에서 우리는 아닥사스다 시절에 예루살렘 성읍 재건이 중단되었고 결국 예루살렘의 파괴로 이어졌는데(스 4: 12, 23 참조), 이 계획은 에스라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만일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당한 환란은 느헤미야로부터 길어야 10년 이내에 일어난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 재앙을 야기한 사건에 대해 느헤미야가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음을 근거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이 성벽재건에 대한 모종의 모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즉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예루살렘 성읍재건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 성읍재건 사역을 후원 해오던 터에 성읍재건이 좌절되고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본다면 느헤미야의 그와 같은 걱정적인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3) 이중정책이었는가?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고 있다(스 4: 12 이하)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재건사역을 중단시켰던 아닥사스다의 태도가 느헤미야 2장에서는 바뀌어져 있다. 느헤미야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주고 여러모로 후원한다.²⁹⁾ 정반대되는 정책을 취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학자들은 최근에 기원전 5세기의 레반트(Levant)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레반트 지역에 그리스 세력이 확장되었기에, 이에 대한 한 방책으로 에스라와 (특히) 느헤미야를 유다에 파견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³⁰⁾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단순한 성읍이 아니라 '요새'로 중건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³¹⁾ 즉 페르시아 입장에서

Mission and its Background," *BURL* 37 (1955), 557-58쪽; Williamson, *Ezra, Nehemiah*, 60-61쪽.

29) 참조 Kenneth Hoglund, "The Achaemenid Context," P. R. Davies(ed.), *Second Temple Studies: 1. Persian Period* (JSOTSup 117), (Sheffield: JSOT Press, 1991), 54-72쪽.

30) 참조 K. Hoglund, *Achaemenid Imperial Administration in Syria-Palestine and the Mission of Ezra and Nehemiah* (SBLDS 125), (Atlanta: Scholars Press, 1992), 97-205쪽; Albert T. Olmstead,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312-13쪽.

31) 느헤미야서에 언급된 **בִּצְרָה**(비라/성곽; 2: 8 등)은 본래 요새(fortress)라는 의미임.

는 서부국경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신들의 허락 없이 진행된 성읍재건(스 4: 12 이하)은 페르시아 눈에 위협하게 보였지만 아닥사스다가 총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느헤미야에 의해 추진된 프로젝트는 오히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것이었다.

요컨대 에스라 4장과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의 처신은 이율배반적이거나 이중적 태도가 아니었다. 페르시아 자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극히 일관된 정책이었다.

(4) 체류기간과 ‘페르시아’ 관리로서의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방문 허락을 느헤미야의 간청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의 결과로 보는 것은 상황을 너무 단순화 시킨 것이다. 만일 느헤미야의 방문이 그의 요청대로 성벽을 중건하고 성문을 세우는 것뿐이었다면(느 2: 3), 52일 동안의 사역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야 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첫 번째 방문 때 자그마치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다(느 2: 1; 5: 14; 13: 6). 이것은 곧 느헤미야가 성벽재건의 역할만 수행하기 위해 보내진 것을 알 수 있다.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의 다른 행적들에 대해 거의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록들을 통해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수행한 일들을 짐작할 수 있다. 가령 느헤미야 5장에는 백성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밭과 포도원으로 빗을 내어 세금을 바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느 5: 4). 처음에는 있는 재산으로 세금을 내다가 재산이 바닥 나자 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아 세금을 내고 심지어 어떤 이는 자기 딸마저 팔아 세금을 내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³²⁾ 이것은 장기간에 이루어진 일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이 지경까지 일이 진행된 것은 적어도 수 년 동안의 세월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것이다.³³⁾ 곧 페르시

32) 세금 납부자들의 경우 당시의 종교세로 대략 소득의 십분의 일을 냈다. 또 일반세금으로 מִן־הָאָרֶץ (미따/조공; 혹은 מִן־הָאָרֶץ 민따; 스 4: 13, 20; 6: 8; 7: 24; 느 5: 4), בְּרִית (베로/잡세; 스 4: 13, 20; 7: 24), מִן־הָאָרֶץ (할락/부세; 스 4: 13, 20; 7: 24) 등이 있었다. 참조 J. Schaper, "The Jerusalem Temple as an Instrument of the Achaemenid Fiscal Administration," VT 45 (1995), 528-39쪽.

33) 백성들의 이 고충을 야기한 근인(根因)은 페르시아의 과중한 세금 때문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오히려 유대 귀인들과 민장들에 의해 비롯되었다며 페르시아를 변호하는 느낌을 준다. 참조 민

아 ‘총독’으로서의 직책은 성벽중건의 책임뿐 아니라 응당 유다를 다스리고 지키는 책무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재건된 예루살렘 요새를 중심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서부전선을 지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 내의 반(反) 페르시아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며 지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요새화하여 성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페르시아의 관리로서의 직책에 충실한 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5) 2차 방문의 목적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임무를 마친 후 페르시아로 돌아간다. 한편으로는 레반트에 대한 그리스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더 이상 페르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 사회 내에 반(反)페르시아 운동의 구심점이 해체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페르시아에 도착한 지 며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급파된다. 유다에서 페르시아로 돌아오는 불과 몇 달의 시간 동안 페르시아 조정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 유다 내에서 일어났던 것 같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2차 방문 때 느헤미야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느헤미야 13장이다. 느헤미야의 회고록(Nehemiah Memoir)의 일부인 이 13장은 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어 왔다. 이 장에 자주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 때문이다. 곧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14, 22, 29, 31절). 소위 이 “기억문구”(remember formula)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처럼 당당하게 요구한 것은 그에 걸맞은 업적이 있을 것이고 느헤미야의 행적을 추론해 볼 때 그것은 성벽재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느헤미야 13장에는 성벽재건 사역이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 가능한 해석은 이 부분의 회고록은 본래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자신에 대해 모함을 하자 페르시아 왕에게 느헤미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보고서용으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해석 역시 충분치는 않다. 왜냐하면 “기억문구”가 포함된 단락은 레위인들에 대해 세심히 배려하는 한편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

경진, “아케메니드 정책과 에스라-느헤미야서,” 19-20쪽.

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14절에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한 이유는 레위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자 이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22절 역시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레위인들에게 새롭게 맡긴 후 기억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 29절과 31절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을 질책한 자신의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따라서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이 기억문구는 제사장들에 대한 견제 및 레위인들에 대한 배려와 깊은 관련이 있다.³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억문구에서 엿볼 수 있는 레위인에 대한 느헤미야의 특별한 관심은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으로 급파되었는가에 대한 정황을 보여준다. 느헤미야는 1차 체류기간 동안 권력이 집중되어 반(反)페르시아 운동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제사장들 세력 견제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서려는 제사장들의 움직임에 대해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이에 페르시아 조정은 다시 느헤미야를 급파하여 제사장들의 대처점에 서있던 레위인들을 후원하여 권력의 분산을 시도하였을 것이다. 가령 느헤미야 13장 13절을 보면 신설된 재무 위원회에 레위인들을 참여시킨다. 이러한 레위인 후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으로써 당면 문제를 해결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에 대한 보고서를 “기억문구” 형식으로 작성하였을 것이다. 이 보고서를 후대에 손에 쥐게 된 에스라-느헤미야서 편집자는 느헤미야를 헌신적인 개혁가로 묘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보고서에 약간의 수정 - 곧 기억문구의 호칭을 ‘왕’에서 ‘하나님’으로 바꿈 -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⁵⁾

3) 느헤미야의 행적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느헤미야의 행적을 정리해 보자. 페르시아에서

34) Kyung-jin Min, *The Levitical Authorship of Ezra-Nehemiah* (JSOTSup 409), (New York &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4), 131-35쪽; J. Schaper, *Priester und Leviten in achämenidischen Juda: Studien zur Kult- und Sozialgeschichte Israels in persischer Zeit in persischer Zeit*(FRLANT 31), (Tübingen: Mohr-Siebeck, 2000), 226-68쪽.

35) 참조 Williamson, *Ezra, Nehemiah*, xxiv-xxviii쪽.

태어나서 자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관직에 올랐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같은 관심을 가졌던 에스라와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 같다. 기원전 5세기에 들어서 페르시아의 서부국경인 레반트 지역이 그리스의 위협을 받자 그 지역의 페르시아 속국들은 동요하기를 시작한다. 이에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불러 예루살렘은 혹시 반란의 여지가 없는지 제사장들 내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유프라테스 강 서편 국가들에 대해서는 페르시아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담은 법을 가르쳐 이탈 국가가 없도록 지시한다. 에스라는 강 서편 지역에서 '법'을 가르치며 예루살렘 성벽재건을 후원한다. 이 성벽재건은 페르시아 왕실의 재가를 받지 않은 사역이었기에 아닥사스다는 성벽과 성읍재건을 페르시아 저항운동으로 간주하여 즉각 중단시킨다. 느헤미야는 성벽재건이 중단되었음을 접하고 슬퍼한다. 돌과구를 찾던 중 아닥사스다에게 자신을 예루살렘 보내 줄 것을 간청한다. 예루살렘의 중건은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역시 필요한 사역이었기에 곧 바로 후원한다. 더군다나 제국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느헤미야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여 예루살렘의 요새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예루살렘 내에 행여 구심점이 생기지 않도록 권력 분산 정책과 친(親)페르시아 정책을 쓴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한 후에도 이와 같은 정책 수행을 위해 12년을 더 체류하게 된다. 그 후 자신이 파송된 소기의 목적을 이룬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갔지만, 곧 예루살렘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세력화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급파된다. 페르시아에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 소위 "기억문구"에 반영된 대로 - 레위인들을 전폭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제사장들을 견제하는 정책을 편다. 이런 역학관계에서 레위인들의 신분은 상승되었고 기원전 5세기 말 이후 유대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을 것이다.³⁶⁾

4. 요약: 458년부터 430년까지의 유대역사

36) 후기 페르시아 시대 및 특히 그리스 시대의 레위인들의 신분상승과 관련된 논의는 한 동구, "헬레니즘이 유대문화에 미친 영향," 「현상과 인식」 제 26집 제 4호 (2003년 겨울), 132-49쪽을 보라.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458년부터 430년까지의 역사를 연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날 짜	사역 내용	관계 본문	
458년	1월 1일	아하와 강으로 모여 떠날 준비	스 7: 1 - 8: 30
	1월 12일	예루살렘으로 귀환 시작	스 8: 31-36
	5월 1일	예루살렘 도착	스 7: 9
	9월 22일	예루살렘으로 회중 소집하여 개혁촉구	스 9: 1 - 10: 15
	10월 1일	이방 여인 취한 자 명단조사 시작	스 10: 16
457년	1월 1일	명단조사 마칩	스 10: 17
457-446년	강 서편 지역에서 '법'을 가르침	스 7: 25-26	
	예루살렘 성읍과 성곽건축	스 4: 12	
	성읍과 성곽건축이 중단, 파괴됨	스 4: 23	

날 짜	사역 내용	관계 본문
445년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접함	느 1: 1-3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보냄	느 2장
	성벽 재건	느 3 - 4, 6장
	에스라가 율법 읽어줌	느 8장
	백성들의 회개와 레위인들의 기도	느 9장
	인구의 1/10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킴	느 7: 1-4; 11: 1-2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느 12: 27-43
433년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느헤미야	느 13: 6
432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432-430년	예루살렘에서의 행적들	느 13: 7-31
	율법대로 이행할 것을 언약 ³⁷⁾	느 10장

6. 참고문헌

- 김 영진,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유다 백성의 야웨신앙,” 「구약논단」 10집 (2001), 103-21쪽.
- 김 영진,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신학사상,” 「구약논단」 21집 (2006), 33-50쪽.
- 김 지은, “페르시아 제국시대 시리아-팔레스틴의 행정체제,” 「구약논단」 6집 (1999), 145-71쪽.
- 김 지은, “페르시아 시대 이스라엘의 사회-종교변화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3집 (2002), 57-72쪽.
- 민 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선구자들의 하나님」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5).
- 민 경진, “아케메니드 정책과 에스라-느헤미야서,” 「부산장신논총」 6집 (2006), 1-21쪽.
- 한 동구, “헬레니즘이 유대문화에 미친 영향,” 「현상과 인식」 제26집 4호 (2003년 겨울), 132-49쪽.
- Ahlström, G. W.,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from the Palaeolithic Period to Alexander's Conquest*, (Sheffield: JSOT Press, 1993).
- Balentine, S. E., *The Torah's Vision of Worship*,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 Berquist, Jon L., *Judaism in Persia's Shadow: A Social and Historical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Bright, J., “The Date of Ezra's Mission to Jerusalem,” ders, *A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 Clines, D. J. A., “The Perils of Autobiography,” in *What does Eve do to Help?* (JSOTSup 94), (Sheffield: JSOT Press, 1990), 124-164쪽.

37) 느헤미야 13장의 행적과 느헤미야 10장에서의 언약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A. Jepsen, "Nehemiah 10", ZAW 66 (1954), 87-106쪽을 참조하라.

- Cross, F. M., "A Reconstruction of the Judean Restoration," *JBL* 94 (1975), 4-18쪽.
- Donner, H., "Das persische Zeitalte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 Hoglund, K., "The Achaemenid Context," P. R. Davies(ed.), *Second Temple Studies: 1. Persian Period* (JSOTSup 117), (Sheffield: JSOT Press, 1991), 54-72쪽.
- _____, *Achaemenid Imperial Administration in Syria-Palestine and the Mission of Ezra and Nehemiah* (SBLDS 125), (Atlanta: Scholars Press, 1992), 97-205쪽.
- Jepsen, A., "Nehemiah 10," *ZAW* 66 (1954), 87-106쪽.
- Kenyon, K. M., *Digging up Jerusalem*, (London & Tonbridge: Benn, 1974).
- Klein, R. W., "Books of Ezra-Nehemiah," *ABD* Vol 2, 731-742쪽.
- McFall, L., "Was Nehemiah contemporary with Ezra in 458 BC?" *WTJ* 53 (1991), 263-293쪽.
- Meyer, E., *Die Entstehung des Judenthums*, (Halle: Max Niemeyer, 1896).
- Min, Kyung-jin. *The Levitical Authorship of Ezra-Nehemiah* (JSOTSup 409), (New York/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Morgenstern, J., "Jerusalem - 458 B.C.?" *HUCA* 27 (1956), 101-79쪽; *HUCA* 28 (1957), 15-45쪽; *HUCA* 31 (1960), 1-29쪽.
- _____, "The Dates of Ezra and Nehemiah," *JSS* 7 (1962), 1-11쪽.
- Myers, J. M., *I&II Esdra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2).
- Olmstead, A. T.,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312-313쪽.
- Rendtorff, R., "Esra und das Gesetz," *ZAW* 96 (1984), 65-84쪽.
- Rowley, H. H., "Nehemiah's Mission and its Background," *BJRL* 37 (1955), 557-558쪽.
- Rudolph, W., *Esra und Nehemia* (HAT 20), (Tübingen: Mohr, 1949).
- Saley, R. J., "The Date of Nehemiah Reconsidered," A. Gary(ed.), *Tottle, Biblical and Near Eastern Studies*, (Grand Rapids: Eerdmans, 1978), 151-165쪽.
- Schaper, J., "The Jerusalem Temple as an Instrument of the Achaemenid Fiscal Administration," *VT* 45 (1995), 528-539쪽.
- _____, *Priester und Leviten in achämenidischen Juda: Studien zur Kult- und Sozialgeschichte Israels in persischer Zeit*(FRLANT 31), (Tübingen: Mohr-Siebeck, 2000), 226-268쪽.
- Williamson, H. G. M., *Ezra, Nehemiah* (WBC 16), (Waco, Texas: Word Books, 1985).
- _____, *Ezra and Nehemiah* (Sheffield: JSOT Press, 1987).
- _____, "Exile and After: Historical Study," D. W. Baker들(eds.), *The Face of Old Testament Studie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236-265쪽.

검색어

에스라의 귀환 연대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엘레판틴

페르시아
역사 재구성

A Reconstruction of Jewish History in the Persian Period,
458 - 430 BC
with Special Reference to Ezra-Nehemiah

Kyung-Jin Min,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reconstruct the Jewish history in the Persian period, 458–445 BC with special reference to Ezra-Nehemiah. 458 BC is the date which is arguably agreed as that of Ezra's return to Jerusalem, and 430 BC is the date which is presumed as the end of Nehemiah's whole mission.

In order to fulfil this purpose we first discuss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what was the missions given to Ezra and Nehemiah by Artaxerxes, and why Nehemiah came to revisit Jerusalem. On the basis of this discussion we outline the Jewish history of the period 458–430 BC as follows:

1. During a period of revolts elsewhere in Persia, the empire felt a strong need to take a more 'hands-on' approach to its provinces, and to enforce greater compliance with imperial policy. Under these circumstances, Ezra was sent to Yehud in 458 BC. He brought a law, which contained not only traditional laws and customs of Judah, but also aspects of imperial control.
2. Another important mission assigned to Ezra was to inquire about Jerusalem and Yehud (Ezra 7:14). Specifically, he had to assess whether there existed a possibility of rebellion by the priests to whom power had been centralized in the community. Ezra was probably,

however, involved in the attempt to build the wall (Ezra 4:7ff), which came to be viewed with suspicion by the Persians, and was prohibited.

3. Nehemiah, who had been in support of the previous attempt to build the wall, learned that the effort had been frustrated, and decided to ask the Persian king for permission to continue the building work. This request was accepted, since the empire thought that it was wiser to give permission: the completion of the wall with Persis's authorization,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a Persian loyalist, would ultimately provide a fort defending an imperial fringe. The empire was aware that the accumulation of power by particular groups in occupied countries was undesirable, as it created an alternative source of authority, and could lead to rebellion. Thus, providing Nehemiah with full support for rebuilding the wall, on the one hand, the empire also required that he should attempt to check the accumulation of power by the priesthood in Yehud, who had previously aroused suspicions of disloyalty, and antagonized other groups locally.

4. During his first term in office, Nehemiah was careful not to neglect this second mission of checking the priests and decentralizing their power. From the outset, he let all the people share in the building work, rather than limiting it to a specific group of people (cf. Neh 3). He was also interested in promoting the status of the common people (cf. Neh 5). Following a brief recall to the court, during which the priesthood took advantage of his absence, Nehemiah took a new and more forceful approach to the problem, by supporting the Levites, who were the only credible alternative to the priests. Upon returning to Jerusalem, he concentrated his efforts on supporting the Levites in various ways, and reported these efforts to the king.

Keywords

Ezra's date • Nehemiah • Artaxerxes • Elephantine
Persia • Historical Reconstruction

